

제42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6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 대미 관세협상 관련

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 2

- 대미 관세협상 관련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대미 관세협상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임명동의안을 채택하여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당적 지원 속에 지난 7월 31일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큰 관심사였던 관세율은 당초보다는 인하된 15%로 합의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무관세 혜택이 무력화되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 또한 20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조선협력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양국 간 엇갈린 입장으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협상과 관련된 논의는 오늘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후속 협상의 방향 등에 대해 국회와 꾸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관세협상 결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산업 및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장동혁 위원님께서 보임되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보임으로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희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 문정호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 이상민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한성진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박인재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발령받은 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 대미 관세협상 관련

(10시09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원이 위원 현안보고 전에 1분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원이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이철규 위원장님과 박성민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기에 채택하셔서 김정관 장관을 중심으로 산업부가 한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님, 박성민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간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한미 관세협상 배경 및 경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평가 및 의의, 향후 계획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한미 관세협상 배경 및 경과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교역 규모 대비 무역적자 규모에 기반하여 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주요국—일본 24%, EU 20%—대비 높은 관세율인 25%가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두 차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거쳐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미 측은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구리 50% 등의 품목관세를 시행하였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32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방안 마련을 미 측에 제안하였으며 저는 산업부장관에 임명된 즉시 방미하여 미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및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협력 등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한 끝에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미 측과 조속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청문회 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주신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은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조선협력에 1500억 불을,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2000억 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 구매 부분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5년에서 28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불 구매를 약속했으며 추후 정상회담 계기에 대미 FDI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으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의의입니다.

금번 협상에서 느낀 점은 한국이 신보호무역질서라는 뉴노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결 이후에도 고관세,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력이 상시화될 것이라 예상되는바 선

제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산지 기준 강화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조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등의 이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어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금융패키지는 미국과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조선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3페이지, 향후 계획 부분입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을 통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15%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미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미 금융패키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미 정부 및 국내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이 협력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 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관세조치 관련해서는 디지털 이슈가 금번 합의에는 미포함되었으나 미 정부·의회·업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농산물 관련 비관세조치도 점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국내 피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대책 마련을 통해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미 측의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미중 간 관세협상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철강·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순으로 하기에 뭐하고 먼저 순서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강승규 위원이고 허성무 위원, 두 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저희 홍성·예산 지역의 수해로 산업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먼저 질문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관세협상 수고하셨습니다, 관세협상 일단 우선 타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도도 하지만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정부 발표 또 각 부처 간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는데 장관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세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은 미국에 쌀과 자동차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역사적인 시장 접근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귀에 꽂힙니다.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고기, 쌀 너무나 민감한 것 아시고 소고기 개방에 대한 국내 사진을 보여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국회 보고 자료에 보면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 표현해 놔어요, 산업부 보고에는. 오늘 보도도 내용을 보면 양국 정부가 미국산 과일·채소류 등의 농산물 신규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추가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처음 발표, 백악관의 발표와 어폐가 있고 산업부의 발표가 또 차이가 나요.

8단계인 현 검역 절차가 상당 부분 완화돼서 사과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이 예산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과수농가들이 저한테 오늘 새벽부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산 사과의 대대적인 한국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예상되고 데스크 만들어서 협의한다고 해 놓고 추가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발표와는 이게, 우리 국민이 뭘 믿어야 되나요? 대통령실 발표를 믿어야 돼요, 지금 산자부나 백악관, 미국에서 슬금슬금 흘러나오는 이런 조각, 편린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PPT를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미국 상공부 트위터 계정의 한미 관세 주요 타결 내용에 보면 미국산 에너지가 1000억 불이 아니라 1500억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또 러트닉 장관이 이것은 1000억이 맞다라고 수정을 했어요.

뭘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아무리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합의문은 나중에 한 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니,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런 신뢰를, 이렇게 불신을 줘도 되는 겁니까?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에서 15% 관세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제로는 우리 FTA 때 무관세에서 일본이나 유럽 등에 2.5% 관세 하고 15% 갔으면 이것 또한 우리는 자동차 수출에 엄청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할 때 멋진 선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게 또 ‘멋진 선물’이 뭘지 모르겠어요. 이것 나중

에 또 국민을 속이는, 그래서 하나하나 깔 때마다 정부가 다른 얘기 할 것 같아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에너지 1500억 불은 그게 이런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정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체크를 하고 해서 1000억 불로 러트닉 장관이 직접 해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은 1000억 불이 정확한 숫자임을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미국 측 입장이 ‘자동차는 마지노선이 15%다’ 그게 굉장히 확고해서 저희들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을 통해 가지고 2.5%의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농산물 관련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검역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게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검역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데스크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왜냐하면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역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데스크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쌀, 소고기 그리고 다른 농산물 관련되는 시장 개방에 대하여는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허성무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이고, 형님 함자를 그냥……

(웃음소리)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또 형님이 됐네요.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또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의결, 올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6·3 조기 대선 등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전대미문의 민주주의 위기,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는 트럼프발 일방적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통상 위기 등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난한 7개월, 8개월을 보냈는데요. 대통령은 심지어 이 관세 통상협상 부담으로 치아가 흔들렸다는 그런 후일담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대미 관세협상단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임박한 시한, 지켜야 할 통상을 통한 국익 앞에서 정말 협상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절박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하

는데요.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또 누가 협상을 한다 해도 이보다 더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가(MASGA) 1500억 불 금융패키지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집행의 약속이나 아니면 조성하는 걸로 최대한도액으로의 약속이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1500억 불을 집행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소가 미국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군함 건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업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그런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우리가 투자해 본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투자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조선사가 미국 진출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상선이든 뭐든 그걸 우리가 계속 수주해서 건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정부 대출이든 보증이든 뭐든 지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 조건 이것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약속한 금융패키지 1500억 불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 마스가 때문에 국내의 공급망이라든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보수언론도 있고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폐쇄적인 조선시장이 열리는 거라서 지금의 우리 국내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거지요. 3500억 불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사회관계망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국내 지적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한테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관께서도 방금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FDI, 직접 투자에 대해서 또 내용이 밝혀질 거다’ 했는데 그러면 이 직접투자, FDI는 기존의 3500억 불의 금융패키지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그 3500억 불 안에 포함되는 건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월 3일 날 25% 자동차 관세를 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이번에 타결된 대로 15%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15%로 언제 내려오는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구윤철 기재부장관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지만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후의 디테일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했는데, 사실 큰불은 이미 다 꺾지만 지금 잔불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잔불 정리를 잘못하면 더 큰 화마를 입을 수 있는데, 결국 디테일 속에 천사를 만들어 내는 것 또 잔불 정리를 잘해서 걱정을 없애게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과 또 통상교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각각 두 분의 각오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조선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집행 조건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는 이슈를 만들어 낼지가 저희들도 고민하는 이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구체화시킬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측의 입장이, 조금 전에 사업 면허 관련된 내용이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미국제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일 정도로 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공급망 일자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조선은 제로입니다. 지금 한 대도 안 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계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 조선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규 수요를 통해서.

그리고 3500억 불 수익 관련해 가지고 러트닉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도 일종의 자본주의, 문명화된 나라인 걸 생각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게 상식에는 맞지 않는 생각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의미는 미국에 일종의 재투자하는 개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FDI는 3500억 불이 아니라, FDI는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25%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EU 그리고 일본, 지금 15%를 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께서 천사 디테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큰불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련 업계 그리고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활용되는 내용 부분들이 우리 기업과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성무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철규** 한번 건너갔다가……

○**허성무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말씀도 잠시 한번 들어 보지요.

○**위원장 이철규** 예?

○**허성무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도……

○**위원장 이철규** 통상교섭본부장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큰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많은 후속 협상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여튼 국익 최대화에 방점을 두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김정관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한구 본부장님도 몇 차례 미국 다니면서 협상을 이끄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참·거짓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국 간 판소리가 나오는 농산물 부분,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 또 투자에 대한 수익이 미국에 90%가 돌아간다는니 또는 투자에 대해서 소유·통제를 미국이 갖고 미국에서 선택하는 대로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발표하는 것이 참이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미국에서 발표하는 게 참이 아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협상 팩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전에 쌀과 쇠고기의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팩트입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더 따져 볼게요.

또 대통령 말씀인데,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참, 거짓? 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참입니다.

○**이종배 위원** 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팀코리아로 협상을 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뒤통수 때리기를 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서.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더 센 상법 또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법인세도 인상한다는 것이 예고됐고.

이래서 기업의 뒤통수를 때린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기업환경팀 만들어 가지고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미FTA가 무력화된 것이 아니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품목관세라든지 상호 관세 여기에 플러스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라면도 기본관세 6.4%가 적용이 돼서, 일본은 21.4%고 우리는 15%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러면 기본관세 유지가 그대로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미 FTA 체결한 나라로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또 세 번째, 이 3500억 불 투자 좀 많다, 우리 GDP 대비해서 EU나 일본에 비해서 많다 그런 얘기 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미국이 사실상 소유·통제를 하고 수익의 90%를 갖느냐? 이것은 재투자 개념이다 이러시는데 여기서 재투자의 의미가 뭔지 좀 애매한 그런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가 ‘한국의 대통령이 추가로 대규모 투자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기에 3500억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예고한 셈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2000억에 대한 주도권도 확실하게 얘기하실 필요 있고.

앞서서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미국이 이걸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개방하는 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 생산업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산물에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도 미국과 얘기가 좀 달라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다른 나라가 모든 다른 나라인지 일부 다른 나라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미군 주둔비나 방위비 문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방위비나 주둔비 이슈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상무부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혜국대우는 우리 품목에 대해서 가장 낮은 관세를 저희한테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나라별로 다르다면 그중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의 대규모 투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FDI를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0억 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3500억 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는 건 1500억 불은 조선업 그리고 2000억 불은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의약품·핵심광물 등에 투자한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되다 그 내용 정도 지금 알개가 구성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투자의 의미는 저희는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떨어지는 일종의 수익이 미국 측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한미FTA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여전히…… 제가 라면 품목을 들었는데 석유화학의 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라면의 관세가 6.4%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15%가 부가가 되는 거고 저희는 0%입니다. 0%에 15%가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여전히 조금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제 입장에서는 제일 답변하기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환경을 담당하고 기업 하는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입법화가 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한테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법이나 상법의 내용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어떤 갈등의 요인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 과정이라든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이슈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진통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기업이나 우리 일자리에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의 대응팀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기업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 중에 ‘FTA가 유효하다. 그리고 FTA가 없는 다른 제삼국의 경우는 기존에 부과되던 기본관세 플러스 이번에 상호관세가 합산돼 가지고 부과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말이지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생중계를 보는 국민들에게 착오가 있거나 혹시 나중에 논란이 될까 봐 이 자리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았잖아요. 우리는 FTA 협정에 의해서 자동차 관세가 없었던 말입니다. 없었는데, 그러면 일본은 15%의 상호관세 플러스 2.5% 기본관세 해서 17.5%가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건 아닙니다. 자동차 부분이 일종의 품목관세여서 저희하고 일본이 똑같이 품목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좋습니다. 그러면 품목관세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뭐였지요, 철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철강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품목관세가 알루미늄 뭐 이런 내용들……

○위원장 이철규 알루미늄, 세 가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원장 이철규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하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품목관세이기 때문에 FTA 효과라는 게 이제 없어져도 나머지 모든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 FTA의 효력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다, 다른 제삼국은 기본적으로 납부하던 관세를 물면서 거기다 더 추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것 명확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통상교섭본부장님,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는데 김종민 위원님이 한 번 양보해 주시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급하게 임명 이후에 통상협상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앞의 허성무 위원님 질문 중에 금융패키지하고 FDI 구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구별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투자 3500억 불 이렇게 처음에는 발표가 돼서 포괄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3500억 불은 금융패키지이고 FDI가 추가로 별개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그러면 EU의 6000억 불, 일본 5500억 불의 개념하고도 마찬가지로인지 아니면 우리만 FDI가 추가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FDI는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다 별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본 5500억 불이 우리로 치면 3500억 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서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패키지 관련해서 전략산업 협력 분야를 정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자, 금융지원 등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명료하지는 않지만 조선·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이런 품목들이 열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원전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품목들을 명시적으로 이번 협의 과정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후속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열려서 다시 논의가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일본 협상이 먼저 된 부분에서 착안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품목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그걸 보고 조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왕에 패키지를 활용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를 선정했던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잠정적이긴 하지만—그런 품목들을 선정해서 협의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협상 내용에 품목들이 나열돼 있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품목을 정하는 기준 또는 근거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고 그런 근거가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품목을 선정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은 제조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미국에는 그와 같은 기술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매칭이 되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조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역량이 없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원자력발전을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서로 맞춘 내용입니다.

○**서왕진 위원**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산업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품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은 객관적이고 또 그런 판단, 결정 자체가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 품목을 정한 근거자료들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제공해서 함께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FTA 부분이 유지가 되고, 그 품목기준 외에는 FTA 기준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EU나 일본에 비해서 장점이 여전히 살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관세가 어쨌든 일괄 추가 적용이 되면서, 기왕에 미국에서 화장품이나 식품 등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여건이 좋아졌는데 그 부분이 가격 상승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문제 또 그것 때문에 제조공장 자체를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필요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공동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미국 내에서 사재기가 일어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의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에 의한 수출 애로 사항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자체를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나 우리 제조업 공동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통상협상에서는 고려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산업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지적에 100% 2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일종의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참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풀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세 후속 지원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텐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 과정에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모멘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어 낼 것인가가 우리한테 큰 숙제구나. 또 우리 산업부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 정부 혼자만으로는 버겁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국회, 우리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답을 찾아내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도전, 위험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모았으면,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지요?

○오세희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하시고, 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성원 위원님 준비하시고.

오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희 위원 장관님, 사실 관세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고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장관 취임하시고 바로 엄중한 관세협상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는 얘기 드립니다.

먼저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아직 어떤 협상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유통에서 온라인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토종의 플랫폼사만 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온라인시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등한 제도와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기초적인 표준계약서도 별도로 크게 표준이 없고요. 그리고 자사우대, 광고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플랫폼사하고 동등해야 된다 그런 건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은 굉장히…… 지금 중국의 플랫폼도 문제지만 미국의 플랫폼사도 본인들의 플랫폼사들만 보호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협상하셔도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드 플랫폼만 규제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걸 꼭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협상이 진행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됐을 때, 관세가 올라가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 공급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굉장히 부담은 갈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그랬을 때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또 물류비·부품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그다음에 대체시장 진출 그다음에 세제지원, 불공정거래 그런 것들의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뿌리산업인 중소기업이 제조를 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역시 제품이, 상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대책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획 있으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그 문제의식에 100%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세 이슈를 전가하거나 납품단가에 반영하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대책 마련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금 당장…… 사실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을 봤을 때 중소기업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서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하청업체에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지원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순서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장관으로서 어떤 자격이나 자질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고 또 장관으로서 빨리 한미 관세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장관으로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글썄요, 정부에서는 자화자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딱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협상에 실패한 정부는 비판을 받겠지만 협상 결과를 거짓말하는 정부는 비난을 받고 그 비난은 정권에 비수가 될 겁니다. 특히 그전에 강유정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장난하면 안 돼요. 장관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고 또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쌀 같은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데 관계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 미세하게 바꿉니다,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나 김용범 정책실장 모두 ‘쌀 추가 개방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장관님.

쌀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말하고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말이 정확한 겁니까? 이것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쌀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고요.

○김성원 위원 둘 다 맞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쌀……

○김성원 위원 표현이 완전히 다른 표현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표현은 다른데 쌀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쌀을 추가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 사실이고 쌀에 대해 통상 협의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부분?

○김성원 위원 예,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했다’, 이것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마 관계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는……

○김성원 위원 저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 발언을 이렇게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한 말 똑같이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이 말씀, 이 표현을, ‘쌀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는 표현과 이번 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의견 일치를 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됐으면 더 이상 쌀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정부합동 보도자료에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거기서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앞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이번에 논의는 했지만 쌀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워낙 쟁점이니까……

논의는 한 거지요.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를 했고 논의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것은 추가 개방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미국도 그러면 추가 개방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90% 수익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 협상에서 제일 미스터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의 국고 귀속’ 이 표현은 사실 전 세계 통상 내지는 국가 간의 협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깐, 이걸 뺏어 가는 거지요. 사실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간 그런 표현들이 백악관 대변인발로 돌아다닌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는 곳에 쓰이기로 했다’. 이걸 말이 됩니다. 투자를, 미국이 여기에 투자해 달라 이런 협상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뭐 합리적인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데 ‘미국 국고에 귀속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의 90%가 이 투자한 투자 소유주, 오너십(ownership)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재투자를 하든 한국 국고로 귀속시키든 투자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오너십을 미국에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그 돈은 저희 돈입니다.

○김종민 위원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그래서 ‘국고에 귀속되기로 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그러면 가짜뉴스 차원에서 대응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철강 관련해서, 50%잖아요 지금. 지금 중국의 위협 때문에 철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

에 있다가 그다음에 탄소 관련 대응도 어렵고 여기다가 50% 관세까지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철강산업과 관련해서 연착륙 전략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K-스틸법도 지금 발의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련된 산자부장관님의 간단한 코멘트 이따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장의 통상협상에 대한 대응도 대응이지만 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국가 산업 차원의 대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장관님이 뭐 바쁘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잘 적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민 위원 앞으로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몇 년이예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 산업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래서 저는 청문회 때 말씀드렸지요, 지금 대한민국 장관 중에 산자부장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지금 일단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중과 관련된 글로벌 대응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 미중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신시장 개척 이게 엄청나게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세 번째로 성장전략을 재편·재구성해야 되는, 신기술 그다음에 글로벌 변화 이것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산자부·과기부·기재부 대응이 별도, 그다음에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안 된다, 종합적인 최고위급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 글로벌 대응과 성장전략의 재편, 산업 대전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재부에 성장전략 TF라고 있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산자부장관 과기부장관 그다음에 기재부장관 중기부장관 다 포함해서 대통령이 적어도 최소한 1년 이상 최근의 이 어전트(urgent)한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산업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컨트롤타워를 좀 해야 된다, 대통령한테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산자부장관이 정무장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산업전략을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고 외교 대응해야지요, 예산 대응해야지요, 입법 대응해야지요, 이해관계 충돌 대응해야지요, 연착륙할 때 전통산업 대응해야지요. 산자부장관이 전문가 장관이 되면 안 됩니다. 정무적 장관이 되고 대통령과 총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또 강하게, 소신 있게 얘기하는 이런 정무적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 대통령 중심의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한 1년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무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리더십이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교, 예산, 이해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문가가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무직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주시고 근본적인 산업 대전환에 대한 이슈는 그 문제의식과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미중 간의 글로벌 대응 관련해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성장전략 재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운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또 산자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국가산업대전환위원회, 제가 이름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우리 산업부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도 같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은 용산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협의해서 진행되는 중간 과정이라도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리고 철강 관련해 가지고는 철강도 참 아픈 분야입니다. 철강이 참 아픈 분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뭐랄까 참 안타깝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큰 벽도 느끼기도 했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필요한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 KOTRA도 좀 해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분야를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철강 관련된 분야는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 입장 자체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해서, 50%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서 더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국내시장 차원에서 보면 경쟁국에서 오는, 저가 구매 관련되는 공정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시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될지 이슈가 하나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철강 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품목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세제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가품에 대한 대응도 지금 우리 무역위원회를 통해서—여기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철강 업계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철강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중기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압도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이 정말 절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철강 관련해서요 지금 철강산업 연착륙에 대한 산자부의 종합적인 대응책, 중국 관련, 미국 관련 그다음에 탄소 관련 종합적인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용 관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장관님, 어려운 관세협상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내의 여러 가지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타결 직후에 자동차·반도체 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도 환영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 지난 8월 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관세협상에 대한 합의 긍정 평가가 63.9%,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성과도 보면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그것이 적어도 다른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두 번째가 쌀·소고기 등 민감품목 시장 개방 제외한 것 그리고 1500억 불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것도 우리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상당한 성과가 있고 성과는 또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3500억 불의 대미 투자, 이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진짜인가 하는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이 대미 투자수익의 회수 여부가 좀 불확실한 것 같단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다들 그런 우려나 걱정도 대해서도 심분 공감을 하고 이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9 대 1, 90 대 10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익에 맞도록 해 나가겠고. 2000억 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양국이 서로 아픈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 또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엮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여하튼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잘 협상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겠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 투자 금융패키지를 조성하는 것도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이것이 어쨌든 우리 정부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정부 재원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 금융기관들, 우리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3500억 불은 정부예산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럴 규모 자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끔 규모나 이런 내용들이 정해질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규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별로 그때그때 투자 규모가 정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그것도 역시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을 잘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비관세장벽 관련해서, 특히 온플랫폼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온플랫폼 이슈가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저도 참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입점 업체나 소비자를 보호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취지인데 이것을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국내에서의 기존의 불공정거래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협상도 저는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해 가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우리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관련된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좀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대미 관세협상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대미 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미 투자 펀드 관련해서 전체 규모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3500억 불 말씀……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3500 플러스 1000억 불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1000억 불은 저희 에너지 구매 금액……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마스가 관련해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3500억 불 안에 포함되어 있는 1500억 불입니다.

○구자근 위원 1500억 불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처를 결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 프로젝트 관련 부분하고 마스가 부분하고 따로 떼서 보면 저희들이 투자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우리가 이 펀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투자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는 모 그룹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에 대한 수리·보수 부분부터……

○구자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전략산업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 미국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미국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 이 분야에 선정이 된 건……

○구자근 위원 투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투자 방식은 그것도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투자라는 게 에퀴티(equity)도 있을 수가 있고 론(loan)도 있고 개런티(guarantee)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우려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중언부언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지금 투자수익 부분에 대해서 90%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대변인이거나 상무장관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하는 부분들하고 저희 정부 측 입장하고 상이하게 다르니까 현장에서 혼란도 생기고 불안감이 조성되는 건 사실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가짜뉴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발표한, 예를 들어 90% 수익을 부채 상환에 한한다든지 미국 대통령이 지시하는 데로 갈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가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게 중간에서, 협상 과정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질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다라고 치고 이게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아무 그것 없이 심하게 이렇게 발표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현상일까. 국민들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또 추가 논의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투자 방식 관련해서 물어도 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기업들이 지분투자도 있을 거고 대출도 있을 거고 보증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래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동참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까.

그런데 국내에서의 환경은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더 센 상법 개정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지금 투자 방식 관련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에 재투자하는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기업들이 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국내 기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셨던 산업부장관 입장에서 이걸 막연하게 그냥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진통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지금 유럽상공회의소나 미국상공회의소나 철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심각성이 혹시라도 장관님한테는 전달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또는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장관님, 이것을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는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더 강하게…… 기업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산업부장관으로 임명하셨을 때는 그만한 여력이나 능력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장관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담아서 대한민국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장관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님……

(웃음소리)

송재봉…… 이럴 때도 있어야지, 뭐.

○이재관 위원 위원장님 실수하시는 모습 보니까……

○위원장 이철규 두 분 다 청주권의 사이좋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바꿔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재관 위원 오늘 협상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평가 그리고 국민적인 궁금증 또 제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의 타결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앞으로 이제 펀드 관련된 일종의……

○이재관 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협상의 결과물이 서면으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의 성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거와 관련된, 형식에 관련된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최근에 미국의 협상의 흐름이, 보통 협상을 하면 양측이 서로 서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도 다 구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고 EU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8월 7일부터 실효 하겠다는 서명을 일단 하시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자동차 관련된 서명을 하실 테고 펀드 관련 내용들에 또 합의가 있을 테고 이런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사자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유리한 내용들을 지속해서, 공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주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농산물, 쌀·소고기와 관련된 부분 또 전체 투자 규모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투자의 주도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 부분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원팀이 되어서 같은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보면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선박이 미국에 수출되어 있는 것이 한 척도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말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역 규모가 엄청난 미국이 선박 최대 생산국인 우리나라로부터 한 척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동안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 같은 경우는 선주가 있고 활용이 다른데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상선이나 이런 내용을 굳이 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재관 위원 목적에 관련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재관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1500억 불, 그러니까 3500억 불에서 1500억 불이 차지하는 선박에 대한,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규모는 저는 오히려 평소에 우리가 개척해야 될 영역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에 무역 이러한 통상협상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의 문제 또 인력의 문제, 단순한 어떤 자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1500억 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어떤 기회의 영역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강이라든지 또 알루미늄 50%라고 하는 어떤 품목별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대외무역 환경이 어려워진 업종, 특히 철강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철강의 위기를 수소경제와 어떤 매칭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략 같은 것들이 구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구상을 할 때 단순히 그 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기를 여타 산업으로 좀 연관시켜서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철강 관련해서는 정말 방향이 저희 정부 생각과 딱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환원제철이 그런 수소와 연계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서 여타 산업으로 확산될 수 밖에…… 철강이라는 게 일종의 제조업의 쌀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확산되도록, 저희들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선박 관련된 내용도 우리 산업부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간 덕분에 말씀하셨던 기술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돼서, 저희들이 협상할 때는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 이번 협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관세협상 결과에 참 불행 중 다행이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협상 결과 자동차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에 비해서 2.5% 정도 불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원래 이 협상 과정에서 2.5%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있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저희 결과가 12.5%가 되는 게, EU나 일본하고 협상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했는데 그렇게 못 됐던 점에서 정말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위원 자동차 수출량, 특히 대미 수출량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은 2.5%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 업(catch up)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련 업계하고도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업계에서는 25%를 혹시 할까 봐 우려를 하다가 15%가 된 것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나름 고무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남은 2.5%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 업 하는 것은 R&D라든지 관련 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현지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캐치 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 지금 현 정부의 선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한미FTA 때문에 0%에서 15%가 된 거지 않습니까, 25%에서 15%가 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자동차가 0%에서 15%가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 25%를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은 25%를 맞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도 또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나름대로 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구요. 그 캐치 업 해야 될 2.5%는 저희가 더 열심히 기업과 함께 원팀이 되어서 한번 캐치 업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자동차가 반도체에 이어서 전체 수출액 2위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아주 수출 효자 종목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장관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경쟁력 저하 때문에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5%를 캐치 업 할 수 있는 방안들, 자동차 R&D라든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자동차라든지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든지 또 특히 자동차의 중소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국내 생산이 감소하면 지역의 협력 부품업체 있지요, 이 일감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력 부품업체에 영세한 사업체가 다수입니다. 지금도 전기차·친환경자동차 때문에 전환해서 많은 업체가 힘든 걸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관세협상으로 인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지역 자동차 전체 그리고 위원님 계신 지역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동만 위원 아무튼 정부가 이 협상에서 자화자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대한민국 산업에 기초한 자동차 또 부품업체, 정부가 세밀한 분석을 하고 또 선제적 대응을 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번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서 국익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 백악관 X 계정의 협상 타결을 알리는 사진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우리 측에도 구윤철 기재부장관님을 비롯한 협상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 장면의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협상 타결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직접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링컨 대통령의 모습인데 직접 저쪽으로 가서 사진 한번 찍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이고. 엄지척을 했던 부분,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잘된다는 의미에서 엄지척 한번 하자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셔가지고 같이 엄지척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권향엽 위원 예, 그렇군요.

주요국의 미국 상호관세 현황만 봐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알지만 지금 현재 철강 품목관세가 여전히 50%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물론 일본과 EU도 50%로 동일합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5일 만에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여정에 고생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 현안이 또한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올해 1월에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 논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 달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봤습니다.

○권향엽 위원 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3월부터 철강 품목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 50%로 상향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관세 폭탄의 영향이 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6%나 감소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미국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2024년 대미 철강 수출이 13.1%의 비중으로 1위가 미국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국내에서 톤당 83만 원에 팔리는 열연강판이 관세와 물류비를 더하면 미국에서 톤당 130만 원까지 오르게 되지요. 미국 현지 유통가가 120만 원인데 이것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한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와 철강 수출을 경쟁하고 있는 EU는 미국과 철강 품목 무관세 쿼터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 경쟁국인 멕시코도 역시 무관세 쿼터제를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끝까지 품목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철강 품목관세가 이번 협상테이블에 못 오름으로써 소년가장이 된 기분이다라고 요즘 업계에서는 말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특수강, LNG 개발에 필요한 파이프라도 관세 예외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기대를 업계는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도 이 내용 챙기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철강 관련해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에 필요한 특수강에 대해서 일종의 쿼터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일단 협상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향엽 위원 끝까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아시다시피 남부지방의 제조업 산업 경쟁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살아야 지역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끝까지 품목관세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김정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미국 가시고 소식을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백악관 캐비닛룸에 통상적으로 손님이 먼저 가서 대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악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가 악수를 권하고 포옹까지 했다’ 이런 보도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만 맞춰 주고 온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에 굴복하고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건 협상이 아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건 협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을 보여 주는 일종의 어떤 게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우호적인 게 아니고 협상이라면 서로 밀고 당기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서로 간에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협상단을 그렇게 환영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했다는 것은 자기는 충분히 만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만 다 맞춰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 주고 왔다 이런 생각인데 맞지요,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왜 사실과 다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실무적인 선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마지막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장면을……

○박성민 위원 국민적 시각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협상단을 그렇게 반기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은 전부 다 충족시켰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기존의 자동차 품목관세만 하더라도 일본이나 EU는 12.5% 올렸는데 우리는 왜 15% 올렸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비슷하게 협상했다라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만 제일, 15%로 올린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올렸다고보다는 미국의 자동차 관련 품목관세를 15%로 모든 나라에 적용을 한 겁니다.

○박성민 위원 15% 적용을 했는데, 제 말귀를 못 알아들습니까? 일본이나 EU는 당초에 2.5% 관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0원이었는데 15%가 됐고 그 사람들은 2.5%에서 15%가 됐으니까 우리가 2.5% 손해 봤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알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협상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반영하지 못하게 돼서 참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쉽게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엄청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5만 대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관세가 없다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미펀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3500억 불 플러스 1000억 불.

3500억 불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가까이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박성민 위원 1000억 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600조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를 들면 1000억 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요.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에너지 그건 놔두고 3500억 불, 500조를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분야도 이게 지금 3500억 불 한 번에 마련하는 돈은 아니고요.

○박성민 위원 간단하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국내 투자가 줄어들 거고 국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생각, 간단한 논리로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 내는 분야입니다.

○박성민 위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마스가도 결국에는 미국이 조선산업 세계 1위 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많이 뺏겼으니까 그걸 되찾아 가겠다는 이야기지 우리를 일방적으로 봐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한테 수주를 하게 되면 그 돈도 우리 1500억 불 펀드 안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호관세나 이런 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국익 우선으로 우리도 철저하게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트럼프 포옹했다, 악수했다, 환영받았다 그건 그 사람 구미에 맞춰 주고 온 것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익 관점에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사실 8월 1일 데드라인 놔두고 하루 전까지 답답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번 정부의 산업외교와 민간기업의 경제외교가 조화를 잘 이룬 걸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관세협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15%, 박성민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쉬움이 좀 남고요. 철강 50%,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사실 경제에서 가장 위험요소인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 이게 가장 큰 성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런 관세협상 결과를 통해서 시장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돼서 25%를 맞았거나 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협상이라는 게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그런 게 협상이니까요. 아쉬운 대목은 남지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산업경제를 위해서는 꽤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님 혼자 미국에 남아 있다가 갑자기 러트닉 상무장관이 유럽 일정 가면서 거기를 따라갔던 그 장면이 이번 한미 통상 과정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꽤 큰 성과가 있었지요, 유럽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공직자들이 힘들게 일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편하고 행복해진다 이런 효능감을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서 장관님 칭찬드리고요.

또 저는 이번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역할들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몇몇 사례 들어 보겠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8일 날 가장 먼저 워싱턴으로 출국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조선업 관련한 협력 패키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주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보도가 되던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특별히 김동관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도 예정됐던 글로벌 정상급 리더십 포럼인 구글캠프 참석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29일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AI 반도체 기술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하면서 협상단에 음으로 양으로 힘을 실어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칭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하면서 정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김원이 위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또 몇몇 사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0일 날 워싱턴 현지에서 정부 협상단에 합류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사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부터 미국 내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밝게 해 준, 협상력을 높여 준 그런 기여를 한 바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도 가스 수입 1000억 불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는 기자들의 전언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즉 이번 한미 협상은 그동안 정부 간의 협상과는 다르게 기업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관세 15%를 맞으면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의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직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명이 어떻게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김의중 조선 담당 과장님하고 이디도 서기관이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는 일부러 그 이름 실명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직접 물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실무

자들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협상의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저는 칭찬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업이었다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공직자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백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성민 간사님이나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우리가 그런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백서에 담아서 앞으로 있을 이런 긴급한, 긴박한 협상 과정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백서를 발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시간에 나온 내용 중에 정리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관님 말이지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1000억 불의 에너지 수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럴 경우에 결국은 에너지의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는데 아니, 물건을 사 오더라도 적정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 와야 될 텐데 그런 가격 같은 것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가격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텐데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이 연간 한 230억~250억 그 내외 정도 됩니다. 연간……

○위원장 이철규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한 100억 불 정도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높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마무리 협상을 할 때 이런 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요구와 그다음에 우리의 실리를 잘 절충해 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조급하게 끌려가서만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이런 것들은 추후에 국민들의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체가, 결국

은 대한민국이 미국에다가 금융이든 현물이든 현금이든 투자하는 그 금액 1500억 불에서 대다수가 한국 조선업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1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한다 할 때 이 자금의 사용처라는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이야기가 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위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500억 불을 미국에 우리 한국이, 한국의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미국에다가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 자금이 다른 데 들어가 가지고 손실이 나거나 적자가 나거나 부실이 있어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미국의 산업에 투자돼서, 우리는 결국은 돈만 투자하고 돈만 건너가고 또 보증책임만 지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 기업들이 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명확히……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막연히 자금이 지원된다면 이것은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2000억 불 아닙니까? 2000억 불이 펀드에 현금으로도 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보증도 거기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만약에 이게 투자 자금이라고 한다면, 미국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삼성전자가 SK 그다음에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설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막대한 수백억 불의 자금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각 기업들이 기업의 이해에 따라서 FDI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것은 뭐가 하면 대한민국의 자금, 대한민국의 국부가 해외로 역외로 가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손해나는 짓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2000억 불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든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든 이 자금이 미국에 가 미국 역내 펀드로 조성됐을 때 안전하게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또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겠지요. 물론 아까도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지고 간다 뭐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내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상식이라고요. 돈을 투자한 쪽이 수익을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이 2000억을 조성해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손실을 누가 책임지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투자자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이철규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철규 당연히 세금을 제하고는 나머지 투자자가 가지고 가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앞으로 협정을 할 때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미국 역내 펀드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조성한 이 자금이 불 보듯이 뻔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게 있잖아요. 잘못 선택해 가지고 수십조의 손실을 본 해외자원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 회생될 수도 없고 하는 데다가 그냥 계속 쏟아붓기만 하는 이런 대상에다 투자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다면 이거 해서는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안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든 국가 간의 거래든 간에 또한 기업 간의 거래든 거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호존중이 돼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계약이라든가 협약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면서까지 국익을 손실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2.5% 차이 가지고 일본하고 EU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뭐 따지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이 여러 가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미국의 정책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세 부과라는 것도 상호적이어야 된다는 것……

상호관세라고 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이름은 상호관세인데 이게 상호관세입니까?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이것은 상호관세라고 보여지지 않아서요. 일방적인, 일방 관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체성을 가지고堂堂하게 국익 중심의 통상 외교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래서 오늘 1차질의 때 답변하시고 보고하신 내용들은 하나도 사실과 다름없이 있는 대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덧붙여 가지고 당부드렸고요.

주질의가 끝났는데 위원님들 중에 지금 계속해서 꼭 더 추가로 한 말씀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신데 특별히 없으면 장철민 위원님 하고, 장철민 위원님이 주질의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니까 장철민 위원님께 보충질의 기회를 먼저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승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상임위를 하다가 경각심이 많이 느껴져서요. 그러니까 협상이 굉장히 많이,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 관계자분들 고생하셨고 정말 선방했다는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한 1000만쯤 있으면 그중에 한 10만쯤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불확실성이 되게 여지가 많잖아요.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국 내 법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물가상승의 불확실성, 그거에 따른 금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EU에서 7500억 불 사 주고 한국에서 1000억 불 사 주고 일본에서 몇천억 불 사 주고 이게 사실상 가능한 얘기냐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데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 에너지 프로젝트의 원가의 불확실성,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고 미국 내 소비자들의 실질임금이나 실질적인 소득 위축에 따른 소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관세 문제 이외에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에 의한 우리 전체적인 수출 감소의 문제, 그것에 대한…… 그러면 금리 높아지고 전체적인 수출 악화되고 그런 종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협상에 대한 평가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우리나라 실물경제나 무역 입장에서 보면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부는 정말로 이제 시작한 것 같은, 정말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지옥을 뚫고 가야 되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위기는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사실 최근까지 몇 년 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어서, G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은 상황이었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지만 일단 이 지옥의 문이 열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미국의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른 투자에 대한 재원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내 산업 보호와 앞으로 국내 산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서 어떤 식으로 지켜 나갈지에 대한 일종의 금융 대책이나 재정 대책을 만드는 것이 천 배는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미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데 허덕이다가 국내 산업 대책에 대해서 실기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대응을 못 할 경우에 5년 10년 뒤에 겪게 될 우리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국회나 아니면 장관님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훨씬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특별법을 만들든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을 또 만들든 하는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상임위가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는 자리가, 특히 우리 산자위에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게 불확실성…… 우리가 했던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관세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책 변화라든지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말씀하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부터 다 지금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제 새로운 시작·지옥의 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항상 극복해 냈던 DNA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과 정부와 정치권이 같이 한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거기에 우리 정부가, 특히 우리 산업부가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승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장관님, 현재 미국산 사과가 한국에 수입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니요, 안 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안 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미국은 93년도 사과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 신청하고 있는데 검역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산 과채류 11개 품목이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아까도 제 첫 질의에 대해 분명히 대답했고, ‘농산물의 검역 절차 완화나 간소화도 없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오늘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만들겠다’,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데스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강승규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 지금 답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팩트는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팩트는 아니고 양국, 이게 지금 미국 측……

○강승규 위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그게 데스크인지 뭔지 만들어지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잠깐만요. 제 얘기에 대답하세요.

신규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나 이런 게 없다 해 놓고 실제 별도 패스트트랙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 이름이 데스크든 아니든 상관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그게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검역 절차의 완화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협상이라는……

○강승규 위원 협력을 강화하는 별도 뭐 만든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런 부분을 좀,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잠깐. 제 얘기에 팩트를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30년 가까이, 미국 측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강승규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뭐 검역 절차 완화든 데스크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미국산 사과나 과채류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이 수입이 되면 이것 개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다른 이슈 같습니다. 검역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강승규 위원 뭐가, 무슨 이슈예요? 무슨 이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검역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검역 절차든 뭐든 지금까지 삼십 년 안 된 사과가 수입이 된다면 이번에 그 협상을 통해서 뭔가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수입이 확대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아니예요? 말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도 미국산 사과는 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역이……

○강승규 위원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검역에서 안 돼서 삼십 년 동안 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수입한다는 것이 수입 아닙니까? 그것을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미국 사과가 수입되는 것에 대비해서 내가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내가 전업을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미국산 과채류 수입이 추가 개방이 없다는 말은 지금 장관이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조금 이따……

저 2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잠깐.

○김원이 위원 2분 드리세요, 마지막이니깐.

○강승규 위원 2분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대표로. 예, 마저 얘기하세요.

○강승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이것도 데스크인지 뭔지 하여튼 협력 창구에 의해서 협력이 된다면 30

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절대, 미국산 소고기는 앞으로도 절대 수입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과채류 이슈이고요, 쇠고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쇠고기도 이번 협상에서 월령 문제가 전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 이것도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과채류가 아닌 소고기도 월령 문제를 다시 어딘가에서 검역 절차인지 뭐든지 해서 협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절대로 수입 개방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까지……

○강승규 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 논의는 없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지금 숨어 있는 뭔가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절대 없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앞으로’라는 말은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고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강승규 위원 분명히 뭘 말씀?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쌀과 쇠고기는 수입 개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강승규 위원 쌀과 소고기가 지금…… 소고기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왜 수입 개방이 없습니까?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니, 그게 아니고 30개월 월령에, 그 30개월 추가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0개월 이상은 앞으로 추가 없습니다, 개방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강승규 위원 분명히 장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산 사과도 수입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미국산 관련해 가지고 현재도 수입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승규 위원 수입 개방했는데 40년 동안 검역이 8단계 중에서 2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검역이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면……

○강승규 위원 절차 간소화도 없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절차 간소화는 없는데……

○강승규 위원 40년 동안 안 된 것이 지금 검역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간소화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8단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 별도 창구를 만든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8단계 절차가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수입이 되는 거지요, 사과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승규 위원 아니, 8단계, 40년 동안 안 되어 왔다니까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강승규 위원 자, 미국 입장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 진실을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미국산 사과나 배나 복숭아 등이 수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수입을 슬그머니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장관이 그것에 책임질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까지……

○강승규 위원 수입하겠다는 얘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잠깐만요. 제……

○위원장 이철규 잠시 식히시지요, 쿨 다운(cool down) 하고.

○강승규 위원 아니, 다른 변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이철규 통상교섭본부장님,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마 더 전문가니까……

지금까지 미국하고 우리나라 교역에서 사과가 수입 금지나 수입 제한 품목이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사실 한미FTA에서 사과는 개방이 됐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개방은 됐는데 그런데 검역 절차가……

○위원장 이철규 개방이 됐는데 지금까지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된 전례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없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위원장 이철규 없었는데 그러면 수입이 왜 안 됐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것은 검역 절차가 우리나라는 8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진행 과정에서 지금 2단계에 머물러 있고……

○위원장 이철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니까 미국산 사과가 우리나라에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수입에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검역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검역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수입이 안 됐다 이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그 검역 절차라는 게 우리가 불합리하고 이것 수입 안 하려고 여기에다 함정을 파 놓고 ‘수입할게’ 해 놓고는 불필요한 규정을 넣어 가지고 검역을 까다롭게 해서, 무리하게 요구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내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쳐야 될 하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은 잔류 농약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위원장 이철규 이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못 들어온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8단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본다라는 입장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절차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단계의 검역 절차 중에 2단계까지는 거쳤다, 이게 뭐니까 2단계는? 2단계가 뭐였어요?

뒤에 실무자 있습니까? 실무자 일어나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8단계가요 1단계는 접수, 2단계는 착수, 3단계는 예비위험평가 그리고 4단계는 병해충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이철규 아는데, 단계 그 한 단계를…… 그러니까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낼 것 아니에요, 사과 수출하겠다. 한국에다가 미국의 수출업자가 냈을 때 당연히 접수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1단계 2단계 할 게 아니고 이런 단계는, 괜히 8단계다 뭐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어디에서 걸린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사과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사과에, 접수까지 해 놓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우리 검역당국이 진행을 안 한 겁니까, 그들이 진행을 안 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런데 사실 검역하는 과정에서 매년 우선순위가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농림부에서는 1년에 한 국가별 2개 품목 이렇게 상대국으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해서 그것을 위주로 하는데 미국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 우선품목 중에 처음에는 사과를 했다가 중간에 또 사과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미국은 한국하고 한미FTA를 할 때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 한국 정부와 약속을 해 놓고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지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미국이 맞출 수 있나요, 과일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게 과학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실험결과, 병충해 예방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글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동일하게 다 갖추었을 경우에 우리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이거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만약 병충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것 말고 다 통과됐을 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다 통과되면 그것은 이제 통과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평가나 테스트에서 다 통과를 했더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규 이 조건을 다 충족시켰을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이미 사과를 개방을 했다, 그런데 못 들어오는 게 검역 때문에 못 들어온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면 가격경쟁 때문에 못 들어온다, 아니면 품질경쟁 때문에 못 들어온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개방을 했지만 검역 절차 그게 오래 걸려 가지고 지금 아직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수입이 안 된다는 말씀……

○위원장 이철규 지금 미국의 사과가 한국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사과가 한국에 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사실 미국은 사과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에서는 수출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하려고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우리는 관세 부과 못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일단 FTA라는 프레임워크(framework)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위반해서 다시 관세를 올리거나……

○위원장 이철규 미국은 우리 FTA 해 놓고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국가안보의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장 이철규 우리가 자동차 수출하는데 그게 안보하고 관련이 있나요? 일반 라면이 안보하고 관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장님, 라면은 별개의 이슈이고요. 지금 철강이나 자동차나 미국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품목별 232조 관세를 통해서 부과하는 부분들은 미국 법제의 어떤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원장 이철규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지역이 사과와 주생산지인데 사과 농사라는 게 단년도 농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과농장을 조성하고 식재해 가지고 수확할 때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투자했다가 만약에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공급이 초과돼서 여러 가지로 이게 판매가 안 된다면 그 농민들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다 있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대로 알려달라는 게 강승규 위원님의 요구 같은데 이걸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른……

○강승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철규 대신 내가 질문 다 해 줬는데……

○강승규 위원 예, 지금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관세협상에서 과채류나 이런 것들이 다 부대조건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그다음에 절차 간소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해 놓고 나중에 그게 수입이 됐을 때 그 혼란을 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지금 모면한다고 하다가 더 저기 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놓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무슨 US 데스크든지 어디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대책을 얘기해 줘야지. 지금 없다고 하는데, 번히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다 수입하기로 돼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장관이나 우리 정부에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강승규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좀 드리세요.

○강승규 위원 찾아갈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갈 문제가.

○위원장 이철규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이 계십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등 보좌진과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산업통상자원특허(13인)	곽상언 권향엽 김원이 김정호 김한규 송재봉 장철민	더불어민주당(7)
	김성원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이종배	국민의힘(5)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중소벤처기업(13인)	김동아 ◎김원이 박지혜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7)
	강승규 구자근 서일준 장동혁 정동만	국민의힘(5)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13인)	권향엽 김동아 박지혜 오세희 이재관 ◎장철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7)
	강승규	국민의힘(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구자근 박상웅 서일준 정동만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5인)	김동아 이언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3)
	◎서일준 장동혁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강승규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김종민 박성민 서왕진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동만 허성무 허종식

○출장 위원(1인)

김한규

○청가 위원(8인)

김성환 김정호 나경원 박상웅 박지혜 서일준 이언주 전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이호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무역투자실장 박정성
정책기획관 안창용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6.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6)

7월 17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3)

7월 21일 회부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4)

이상 2건 7월 22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7. 2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이상 3건 7월 24일 회부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0)

7월 25일 회부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8)

7월 28일 회부됨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6.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8)

이상 5건 7월 30일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5)

이상 2건 7월 31일 회부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2)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5)

이상 5건 8월 1일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7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8)

이상 2건 8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50	36	20	4	255
중소벤처기업부	20	13	28	3	73
특허청	4	12	14	3	32